

뜨거운 광주FC, 역대 최다 승점 향해 쏜다

오는 2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서 대전과 맞대결
펠리페 발골·감각적 세트피스 공격옵션 다양화

프로축구 광주FC가 홈경기 무패행진과 함께 구단 최다승점 달성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시티즌과 하나원구 K리그2 2019 25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현재 광주는 승점 51점으로 3개월째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라운드 우승 경쟁 팀인 부산과의 중요한 일전을 무승부로 마치며, 승점 5점 차도 유지하게 됐다.

특히 선제골을 내주고도 집중력을 발휘, 종료 직전 득점에 성공하는 등 리그 1위다운 면모를 보여주며 분위기 전환에도 성공했다. 반면 부산은 올 시즌 광주와의 3경기 모두 선제골을 넣고 무승부에 그치면서 추격의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홈 11경기 무패행진(7승4무) 중인 광주는 이번 대전전에서 역대 한 시즌 최다승점 기록에 도전한다. 이전 최다승점은 2013년 53점(정규리그)이었다.

광주는 최근 득점루트를 다변화하는데 성공했다. 펠리페의 발골을 적극 활용하고, 상대수비가 압박할 경우에는 세트피스로 응수했다. 21라운드 수원전은 필드 슈팅, 22라운드 전남전은 세트피스, 23라운드 부천전 펠리페 헤더, 24라운드 부산전은 이요셉의 프리킥 득점 등이다. 상대 입장에서는 까다로우 수밖에 없다.

이번 대전전은 이한도와 여봉훈이 경

고누적 징계로 출전할 수 없다. 광주 수비와 중원의 핵심 전력들이기에 광주는 공백을 철저히 메워야 한다. 현재 캡틴 김태운, 김진환, 홍준호 등이 준비하고

있으며, 휴식을 취한 박정수, 여름 등도 출격 대기 중이다.

이번 상대인 대전은 승점 16점으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최소득점 1위, 최다실점 2위일 정도로 공수 모두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와의 악연이 깊다. 상대전적은 7승 5무 9패, 최근 홈경기 맞대결에서도 1무 2패로 열세였다. 지난해 플레

이오프에서도 분루를 삼켜야 했다.

광주는 대전과의 홈경기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키쥬와 박인혁, 박수일 등 수준급 공격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공격옵션을 확보한 광주가 천적 대전을 상대로 홈 승리와 함께 구단 역대 최다 승점 달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주목된다. /박희중기자



최근 대전과의 경기에서 슈팅하고 있는 펠리페.

/광주FC제공

광주서 전국장애인좌식배구대회 개최

제24회 광주시장기 대회
23-25일 장애인체육센터
남 12개·여 7개 등 19개팀
선수·임원 등 400명 참가

제24회 광주광역시장애인 전국장애인 좌식배구대회가 23일부터 3일간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광주시장기 전국장애인좌식배구대회는 장애인 스포츠 저변확대와 지역 및 동호인간 교류 도모, 건강증진 등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대회로 전국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한다.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배구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장장애인배구협회가 주관한다. 또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한다.

올해 대회에는 서울, 경기 등 11개 시·



지난해 열린 제23회 광주광역시장애인 전국장애인좌식배구대회에서 임상팀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광주시배구협회 제공

도에서 남자부 12개팀과 여자부 7개팀 등 총 19개팀에서 400여명(선수 250·임원 등 150)가 참가한다. 19개팀 및 400여명은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여성팀이 예년보다 많은 7개팀이 참가해 남성과

여성 장애인들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발 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는 조별 예선리그를 거쳐 본선 토너먼트와 결승전이 진행된다. 개회식은 2

4일 오전 11시, 폐회식과 시상식은 25일 오후 1시 30분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지난대회에서는 남자의 경우 천안시청이, 여자부는 전남선수단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박희중기자

MLB닷컴 “올해 최고 선발 류현진, FA 시장도 흔들 것”

“지난해 8월 이후 16승 6패 평균자책점 1.70
완벽한 FA 타이밍…계약 빨리하는 게 좋아”

강속구 투수가 즐비한 2019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시속 140km대 공으로도 무대를 평정한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비시즌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을 흔들 기대다.

MLB닷컴은 22일(한국시간) “2년 연속 FA 자격을 얻는 류현진이 이번 FA 시장을 흔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현진은 눈부신 2019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는 23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12승 3패 평균자책점 1.64로 활약 중이다.

그의 화려한 투구는 지난해 후반기부터 시작됐다. MLB닷컴은 “류현진은 지난해 8월 16일 이후 32경기에 선발 등판해 20이닝을 소화하며 16승 6패 평균자책점 1.70의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라고 전하며 “류현진이 FA 시장을 흔들 준비를 마쳤다”라고 분석했다.

류현진은 2018시즌 종료 뒤 메이저리그 입성(2013년) 후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류현진은 FA 시장에 나오지 않고 다저스가 제시한 클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였다.

그의 올해 연봉은 1천970만 달러(약 215억원)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올 시즌 종료 뒤 류현진은 다시 FA 자격을 얻는다. 이번에는 다저스가 클리파잉 오퍼를 제시할 수도 없다.

MLB닷컴은 “이번에는 류현진이 진짜 FA가 된다. 류현진에게는 완벽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FA 투수 시장에서 게이트 콜과 매디슨 범가너 이야기만 들리는 게 아니다. 델리스 카이클, 로비 레이, 잭 윌러를 언급하는 관계자도 많다. 그리고 류현진은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발 투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구단 관계자들도 류현진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 한 내셔널리그(NL) 임원은 MLB닷컴에 “류현진은 삼진을 많이 잡거나, 시속 100마일(약 161km)의 빠른 공을 던지지 않고도 압도적인 투구를 한다. 정말 공을 던질 줄 아는 투수”라고 칭찬하며 “나는 류현진의 투구를 보는 걸 좋아한다. 매우 놀랍고 독특하다. 야구에서 ‘독특한 스타일’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메리칸리그(AL) 소속 구단의 한 단장은 “그라운드 위에서 류현진은 매우 강하다. 스트라이크존을 절묘하게 사용하고, 법타를 유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현진에게도 감점 요소가 있다. 나이와 부상 이력이다. 류현진은 30대에 접어들었고, 2015년 어깨 수술을 받는 등 자주 부상으로 이탈했다.

NL 구단의 임원은 “나이는 정말 애매한 요소다”라고 했다. “관점의 차이가 있다. 포스트시즌에 내보낼 투수를 고르려면 나는 류현진보다 카이클이나 범가너를 택하겠단다”라고 말하는 관계자도 있었다.

AL 구단의 FA 협상 전문가 “류현진은 FA 시장에서 최정상급 투수보다 다소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류현진으로서는 빠르게 계약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FA 시장에서 장기전을 펼치면 금액이 더 떨어지는 사례도 많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조코비치·나달·페더러 ‘이번에도 3강’ US오픈 테니스 26일 개막…정현 등 예선 거쳐 본선행 도전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오픈 테니스대회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개막한다.

올해 US오픈은 역대 테니스 메이저 대회를 통틀어 최대 규모의 상금액을 자랑한다. 총상금이 지난해 5천300만달러에서 올해 5천700만달러로 늘었고 남녀 단식 우승자에게는 한국 돈으로 46억3천만원에 이르는 385만달러를 준다.

올해 앞서 열린 다른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 상금은 1월 호주오픈이 410만 호주달러(32억7천만원·이하 대회 당시 환율 기준), 6월 프랑스오픈이 230만유로(30억7천만원)였고 7월 윌버턴은 235만파운드(34억7천만원)였다.

최근 환율 변화를 고려해도 올해 US오픈 상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손색이 없다.

남자 단식은 이번에도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가 ‘3강’으로 꼽힌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에서 이들 세 명 이외의 선수가 우승한 최근 사례는 2016년 US오픈의 스탠 바브링가(24위·스위스)다.

이후 2017년과 2018년은 조코비치, 나달, 페더러가 메이저 대회 우승을 나눠가졌고 올해도 호주오픈과 윌버턴은 조코비치, 프랑스오픈은 나달이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우승자인 조코비치가 2연패에 성공하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한 해에 메이저 3승을 달성한다.

조코비치는 2015년 외에 2011년에도 호주오픈, 윌버턴, US오픈을 석권했다.



정현 선수

이에 맞서는 나달은 2년 만에 패권 탈환에 도전하고 페더러는 2018년 호주오픈 이후 개인 통산 메이저 21번째 우승을 노린다.

이들 세 명은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기록 경쟁도 벌이고 있다.

페더러가 메이저 대회 20승으로 기록을 보유 중이고 나달이 18회, 조코비치는 16회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로는 정현(151위·한국체대)과 권순우(90위·CJ 후원)가 남자 단식 예선 결승까지 올라 있다. 1승만 더하면 본선에 나갈 수 있다.

여자 단식에서는 한나레(163위·인천시청)가 예선 2회전에 진출했다. 한나레는 2007년 US오픈 조윤정 이후 12년 만에 한국 여자 선수의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 진출을 노린다. /연합뉴스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운영개선 평가회

지난 5월1일부터 3일간 영암군 일원에서 개최된 제27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결산하기 위한 운영평가 회의가 22일 2020년 차기 개최지인 녹차 수도보성에서 열렸다.

이번 운영평가 회의에는 전남도청, 시·군장애인체육회, 22개 시 군 담당직원, 경기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대회의 광복할 만한 성과와 미진한 부분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군 및 경기단체에서 요구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내년 대회는 더욱더 알

차고 감동적인 대회로 기억되도록 보성군과 긴밀한 협조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회에 앞서 도민제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유공자에게 표창장 및 공로패 전수식도 진행됐다.

김은래 전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금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2020년 대회에는 보다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도록 해 장애인체육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지난 5월 열린 제27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의 결산을 위한 운영평가 회의가 22일 보성에서 열렸다. /전남장애인체육회 제공

100회 전국체전 성화봉송 역대 최대 규모 1천100명 13일간 시·도 총 2천19km 달려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봉송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13일간 17개 시·도 총 2천19km 구간을 달릴 주자 1천100명을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성화 봉송 기간, 거리, 주자 수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2천19km는 전국체전 100주년인 올해 2019년도를 의미한다.

봉송 주자는 천만 서울시민과 전국체전 100주년을 더해 1천100명을 추렸다. 남성 참가자(788명)가 여성 참가자(312명)보다 2.5배 많았고, 5명 중 1명은 전·현직 체육인(233명, 21.2%)이었다.

장애인(251명(22.8%))이었고, 미국·중국·일본·프랑스·독일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19명)도 참여한다.

유명 인사 가운데는 U-20 월드컵에서 한국 청소년 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정정용 감독, 3·1운동의 주역 신영일 선생의 외손자인 배우 배성우 씨, 의료·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요한 연세대교수가 성화 주자로 나선다. 한국 육상의 셋째 양예빈 선수와 DMZ(비무장지대) 근무 당시 목숨지피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조정선수로 변신한 하재현 선수 등도 주자로 참여한다.

이번 전국체전 성화는 사상 최초로 전국에서 채워진다. 9월 22일 서쪽의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을 시작으로 동쪽의 독도, 북쪽의 임진각, 남쪽의 마라도에서 차례로 채워가 진행된다.

채워진 성화는 7일간 전국을 돈 뒤 9월 29일 올림픽공원(서울)에서 채워진 전국장애인체전 성화와 함께 다시 6일간(9월 29일~10월 4일) 서울 전역을 순회한 후 10월 4일 개회식이 열리는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성화로를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는 봉송 기간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3·1운동 재현, 부산 광안대교 앞바다에서 요트 봉송,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한 성화 봉송, 광화문~송레온 퍼레이드 등 이색 이벤트도 마련했다. /연합뉴스